

<봉헌과 감사의 기도>

(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 때에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회중)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을 보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은사로 우리를 양육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랑과 삶을 나누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이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넘치도록 채우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대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설교 : “신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 마1:18-23; 사7:14; 갈4:4-5 >

✠ 교 회 소 식 ✠

㉮ 예배

내 결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닌, 바로 내 결의 그 한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다가갑시다.

- 구역연합예배 : 14일(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 성찬식&세례식 : 21일(주) 1·2부 예배 시
- 교회학교 성탄발표회 : 21일(주) 오후 1시 30분, 본당
- 성탄축하예배 : 25일(목) 오전 11시
- 은퇴추대식 : 28일(주) 2부 예배 시
 - * 은퇴장로 : 백종관 오병욱 * 은퇴집사 : 김상일 최종걸
 - * 은퇴권사 : 김현수 이선옥 장현숙
 - * 명예집사 : 강기석 김광엽 정세학 * 명예권사 : 김란향
- 신년예배 : 2026년 1월 1일(목) 오전 7시

㉮ 전체제직회(예산) : 14일(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 공동의회(예산) : 21일(주) 2부 예배 후, 본당

㉮ 세례문답식 : 14일(오늘) 오전 10시 15분, 회의실

㉮ 신임집사교육 : 14일(오늘), 오후 12시 30분, 회의실

㉮ 향존직 피택자교육 : 16일(화) 저녁 7시, 회의실

㉮ 엘림아카데미 송년회 : 17일(수) 오전 11시, 본당 “감사의 축제, 축복의 만찬”

㉮ 모임

- 한길성경공부모임 :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
- 한빛기도회 : 19일(금) 오전 11시, 기도실
- 독거노인 반찬배달 : 18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시무권사 온라인 기도모임 : 26일(금) 오후 7시 30분

㉮ 지역사회와 함께 노래하는 대림절/성탄절 음악회 : 17일(수) 오후 7시, 본당

- 출연 : 종로구립합창

㉮ 교역자 사임 : 김영광 전도사(아동부)

㉮ 권정원 오르간 연주회 : 20일 토 오후 5시, 본당

㉮ 식당봉사

- 14일(주) : 김정단 노찬희 최호정 / 박지윤 방승주
- 21일(주) : 권은경 장형순 최은진 / 송홍식 이강민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740호
2025. 12. 14.
대림절 셋째주일

2025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탕감의 은총, 기다림의 시간

이사야 30:18

교회력의 새해는 부활이나 성령강림의 능력이 아닌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텅 빈 시간이 아니듯, 대림절의 기다림도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은 충만한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사30:18)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페일레마타'는 '빚'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넉넉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좋은 백 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기다려 달라"는 요청조차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왕은 측량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희생을 치르며 탕감해 주셨건만, 좋은 그 작은 기다림조차 베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넘어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큰 희생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림입니다. 아직 갚지 못한 사람, 아직 변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 "왜 아직도?"라고 재촉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두고, 기다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대림절 셋째주일 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율림> 말 은 이

<대림절 촛불점화>

(목사)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모래로 즐거워할 것이다.(사35:1-2)
(촛불 점화) 주님의 빛 가운데로 행합시다.

<개회송> (오르간)

<대림절의 연도>

(목사) 오! 지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을 총만히 감싸며 능력과 온유로 모든 것을 명하십니다. 이제 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주여, 이스라엘 집의 주권자여,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이새의 뿌리여, 온 백성을 위한 표징으로 일어나시니 세상 왕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며 민족들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 집 위의 홀이여, 주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행하던 죄인들을 놓아주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찬란한 새벽이여, 영원한 빛의 광채여, 정의 태양이여, 오셔서 어둠 속에 사는 자,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자 위에 비추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온 민족의 왕이여, 백성이 갈망하는 임금이여, 주님은 온 인류를 결합하시는 모퉁이돌이십니다. 오셔서 주께서 진흥으로 빛으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주권자, 율법의 주이시고 민족들의 소망이여 만민의 구주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회중)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시 묵상기도)

(목사)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온 땅이 소망 가운데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갈망합니다. 그는 영원무궁토록 주님이시니 그가 오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영접합시다.

(회중) 아멘

찬 송 33장 다 갈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련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으며,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3) 사죄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105장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30:18(1002) 송홍식 집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12-13(326) 송홍식 집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씬 묵 상 > “이새의 뿌리에서”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6:12(8) 김연신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탕감의 은총, 기다림의 시간』 마명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7: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김연신 권사